

# 복지

한국불교  
복지 70년

# 1990년대부터 폭발적 증가세...

복지(福祉)는 국어사전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복지의 영역(英譯)인 'Welfare'의 역시 '잘(Well)'과 '살아가다(Fare)'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이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가 탄생하면서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가지는 의무가 됐고,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진다.

근대 이전인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국가가 백성에게 구휼하는 형태로 복지가 이뤄져왔다. 특히 한국으로 전래돼 삶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불교도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복지를 진행했다.

고려시대 사찰은 적극적으로 빈민 구제 사업이나 이를 예방하는 사업, 여행자를 보호하는 사업까지 다양했다. <고려사>에는 연복사와 개국사 등에서 구호사업을 전개한 사례들이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 불교는 조정과 사대부로부터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사찰의 사회적 기능이 점차 축소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사찰이나 승려 개인적 차원에서 활동한 사례들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태종 6년(1406)에 천노 출신이었던 장원심(長願心) 스님이 있었다. <태종실록>에 나타난 장원심 스님의 활동 기록을 살펴보면 스님의 자비행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장원심 스님은 기근자를 보면 꼭 먹을 것을 빌어 먹고, 자기의 옷을 벗어 입혀 주었으며, 앓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힘을 다하여 구휼했다고 한다. 또한 도로와 교량을 만드는 사업에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는 갈 곳 없는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을 사찰에서 보호하는 형태로 명맥이 이어진다.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불교는 근대식 복지를 구현하기 시작하며, 불교복지시설의 설립 시도도 이뤄진다.

특히 아동 보호 시설이나 청소년 감수소 등이 주류를 이뤘다. 1925년 능인포교당은 능인유치원(원아 62명)을 설립했고, 월정사 영월포교당은 금성유치원을 설립·운영했다.

의료 복지를 위해 1923년 불교중앙포교소에서 불교 최초 의료기관으로서 불교제중원을 만들었으나 재정난으로 1925년 폐쇄되기도 했다.

### 해방 혼란과 불교복지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한국 사회는 크게 혼란을 겪는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과 고아 등 유보호자와 빈민이 급증했다. 미국 등 외국의 원조가 이어졌으며 복지기관들도 진출했다. 실제 1950~60년대 내한한 기관은 모두 96개로 당시 복지기관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시기 불교계의 복지 사업은 재정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한다. 다만 원력있는 스님과 사찰이 나서서 복지 기관을 운영하면서 명맥이 유지된다. 특히 전후 상황에서 고아들을 수용하는 아동복지가 두드러졌다.

해방 이후 최초로 설립된 불교아동복지시설은 1946년 설립된 해명보육원이다. 이어 1947년 자선원(천안 금주사), 1949년 자혜원(수원 용주사), 1954년 장흥 광명보육원이 설립됐다. 1960년대에는 서애원(1960), 경주대사원(1963), 의정부 쌍암사 보육원(1968), 대한불교보현회 파평자애원(1968), 대각사보육원(1969)들이 개설해 오갈 곳 없는 아이

들을 돌보았다. 1970년대부터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불교 관련 아동 복지시설 설립은 잠시 주춤한다.

### 80~90년대 복지사업 성장과 불교

1950~60년대가 전후 혼란을 수습하는 시기였다면 1970년대는 경제 발전의 시기였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정책적으로 이뤄진다. 1981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 4대 지표를 내세웠고 복지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수정·제정하게 된다. 1988년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으로 빈부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제6공화국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상당 수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켰다.

### 고려·조선 사찰, 구휼 중심 복지 일제 당시 근대 복지 구현 힘써

### 현대 들어 국가가 복지 정책 주도 민간 복지기관·법인 등 설립돼 불교복지, 20년 간 빠른 양적 성장 생명나눔 출범... 장기기증 '새 장' 국제구호·기부 활성화 영역 넓혀

### 복지시설 다수 노인 분야에 치중 다양한 소외계층에 관심 가져야

당시 개정된 복지 관련 법률은 모자복지법을 비롯해 영유아보호법, 의료보호법, 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교계의 복지사업도 활성화된다. 실제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불교 사회복지시설 958개를 시기별로 분류했을 경우 1970년대까지 설립된 복지시설은 2.2%에 불과하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6%로 증가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000년 이후 설립된 복지시설은 현재 복지시설



불교계 최초 공익기부재단인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2008년 9월 출범했다. 불교 사회복지 사업은 2000년 이후 기부문화 활성화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성과를 보였다.



장애인 복지의 선두주자 승가원의 떡국 나눔 모습. 불교계 복지사업은 편중성이 심해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의 60%이상으로 조사됐다. 굵직한 복지관련 불교 법인들이 설립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복지영역을 개척하던 스님들이 1989년 범종단적 불교복지 추진기구인 '불교사회복지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조계종 중흥을 역임한 해동선대 원하 대종사는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 법인인 '통도사 자비원'을 1991년 교구본사 최초로 설립했다. 대종사의 원력은 당시 취지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발기인들 명의의 취지문에는 "불교의 자비 이념을 바탕으로 널리 이 땅에 고통받고 버림받은 이들을 종교적 환경 속에서 보다 편안하고 인격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경노효친 정신과 불교 효자경 및 부모 은중 사상의 실천도량이며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의 사회복지시책에 부응하여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보다 널리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국민복지 증진사업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기술돼 있다.

이 같은 대종사의 자비 사상은 지난해 열린 '월하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 이혜숙 급강대 교수의 발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교수는 '월하 스님과 불교 복지, 그 회고와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복지에 일찍 눈뜨지 못했던 불교계의 상황에서도 월하 스님은 일찍이 복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아낌없는 후원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스님의 개인 원력으로 세워진 복지 법인들도 하나둘 출범했다. 1989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1994년 삼천사 성운 스님이 사회복지법인 인덕

원을 설립, 한국 사회복지계를 선도하고 있다. 1994년 3월 생명나눔실천본부도 설립돼 장기기증 캠페인을 사회적으로 확대했다. 1995년에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1998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문을 열고 불교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한 복지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종단들이 복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95년 이후다. 조계종의 경우 1994년 종단 개혁이 그 시발점이 됐다. '종단개혁불사 백서'에 따르면 개혁회의는 각종 공익단체, 문화예술진흥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사업, 승려노후복지원, 불교사회복지법인 등을 설치할 것을 종헌에 명시했고 개혁종단 총무 원장 월주 스님은 취임과 동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월주 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기금으로 20억 원을 조성해 노동·인권·복지·통일 사업 등에 투입했다.

1995년 2월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최초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복지사업에 뛰어들었다. 복지재단은 1995년 6월9일 창립법회와 함께 '지방자치시대와 21세기를 대비한 불교계 사회복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운영과 복지활동이 미진한 이유를 사회복지 전문가 부족 때문으로 진단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까지 복지재단은 187개소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5200여명의 사회복지활동가와 10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양성돼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종단 개혁이 가져온 순기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진각종은 1998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을 출범시켰다. 현재는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아동 보육 시설 등 40여 개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천태종은 1999년 천태종복지재단이 설립됐다. 사업으로는 단체지원사업, 결연사업, 특별지원 및 자비의 이웃돕기사업 등을 하고 있다. 4곳의 노인복지시설과 5곳의 노인요양시설, 2개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10곳의 아동보육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불교계의 복지 사업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조계종은 자체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시설 위탁을 적극 추진해왔다. 1980년대까지 개신교, 가톨릭에 못 미쳤던 복지 사업 역량이 20여 년만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실제 2012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불교계의 복지시설은 1995년 95곳에 불과했으나 20년 만에 1065곳으로 증가했다. 약 11배가 증가한 것이다. 개신교는 1633곳, 가톨릭은 1043곳, 원불교 190곳을 운영 중이다. 단순히 복지시설 숫자만으로 종교별 수평적 비교는 어렵겠지만, 불교계의 짧은 사회복지 참여 기간을 참조할 때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알 수 있다.

**기부·스님 연수로 이어진 자비원력**  
2000년대에 오면서 불교 복지 역량은 기부 문화와 국제구호로 이어진다. 기부문화 활성화에서 가장 큰 족적은 전문 기부 모연 기관의 설립이다. 조계종은 2008년 3월 '아름다운동행' 발기인 총회를 갖고 설립 절차에 들어가 9월 30일 창립법회를

##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